

# 불황에도 살아나는 '기부 훈풍'

초등생들 용돈 모아 성금  
익명의 천사 쌀 100포 기부  
구청 하루 30전 후원 문의  
사랑의 온도탑 꾸준한 증가 등  
광주·전남 곳곳 온정 이어져



월산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최근 광주시 남구청사 1층 로비에서 열린 제6회 남구민 나눔의 날 행사에서 1년동안 모은 용돈 기부에 앞서 저금통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용진육아원(고아원) 아이들은 올해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넉넉하지 않지만 최근 몇 년 새 똑 끊겼던 후원물품들이 하나둘 들어오면서, 시설 내 아이들(3세-대학생, 52명) 모두가 모처럼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민재용 용진육아원 원장은 "수년 동안 주춤했던 후원이 올 연말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아이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있다"며 "크리스마스 선물인 새 옷을 입고 행복해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다"며 활짝 웃었다.

올 겨울 들어 광주·전남지역 곳곳에 따뜻한 기부 훈풍이 불고 있다. 기부금품이 딱 끊겼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경제불황은 여전하지만, 기부·후원 등이 늘면서 소외계층들의 삶에도 온기가 스며 들고 있다.

경기침체와 맞물려 부정정탁 등을 금지한 '김영란법'과 기부금품을 호화롭게 쓴 '이영학 사건' 등으로 이른바 '기부 포비아'라고 불릴 정도로 위축됐던 기부문화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게 복지 업무 종사자들의 설명이다.

25일 광주와 전남지역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남구 월산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생 44명은 1년 동안 고사리 손으로 모은 성금 48만원을 남구청에 기부했다. 아이들은 올 초부터 군것질 등 각종 유혹을 이겨내며 조금씩 돈을 모았다. 아이들이 기부한 저금통에는 꼬집꼬집 구부러진 천원 짜리 지폐부터 100원, 500원짜리 동전이 가득했다고 한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삶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감동의 말을 전했다.

함평군 읍사무소과 신광면 사무소도 최근 마음이 따뜻해지는 선물을 받았다. 한 익명의 기부자가 지난해에 이어 각각 백미(10kg) 50포씩, 100포를 놓고 사라졌다.

쌀 포대와 함께 전달된 A4 용지에는 '올해는 더 많은 분께 나눔을 실천하고자 했으나 녹록치 않은 현실이 부끄럽습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면 저 또한 포근한 연말을 보내지 않을 까 합니다'라는 메모가 들어 있었다.

지난 18일에도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한 태권도장에 다니는 아이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100만 원을 서구청에 기탁하는 등 기부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선 자치단체에도 지난해와 달리 기부·후원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역 5개 구청에는 하루 평균 30여 건에 이르는 후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남구청에 접수된 각종 후원 물품 및 후원금 규모도 11월 말 기준으로 6억 1373만원에 이른다. 남구는 후원금품이 물리는 12월 한달치를 더하면 7억원은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구청이 지난해 받은 후원·기부금품은 총 6억 원 수준이었다.

지난 24일까지 북구청에 접수된 올해

후원·기부금도 6억 6600만원으로 지난해 5억9400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서구(8억 5000여만원)와 광산구(6억 4000여만원)도 전년 대비 후원·기부금이 늘었다고 한다.

자치단체들은 기부금은 물론 현물로 지원된 물품까지 더하면 실제 기부·후원금은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자치구 복지담당자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7년만에 85도에 그치며 목표달성에 실패했던 광주 사랑의 온도탑에도 시민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광주·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따르면 광주 사랑의 온도탑은 지난 23일 기준으로 43.5도를 기록했다. 이날 기준으로는 23억2800만원의 성금이 모였다. 이는 지난해(20억9900만원) 같은 기간에 비해 2억2900만원(10.9%)나 증가한 것이다.

전남 사랑의 온도탑은 지난 23일 기준 39억5785만원으로 수은주는 40.1도를 기록했다. 지난해(37억6948만원) 같은 기간과 비교해 1억8837만원(4.9%)이 늘었다. 전남 사랑의 온도탑 목표액은 98억 6100만원이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12월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신호위반 무려 7만8천건

전국적으로 12월 한달동안 어린이 등하 곳길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경찰관을 확대 배치한 결과 과속과 신호 위반 등 위법행위 적발이 크게 늘었다.

경찰청은 12월 1~20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6만8503건, 신호 위반 8363건 등 총 7만8382건의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를 단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는 직전 20일인 11월 11~30일에 적발된 6만8264건보다 14.8% 늘어난 수치다.

위법행위 가운데 과속 적발 건수는 무인단속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경찰관이 이동식 단속 장비를 설치해 단속한 결과로, 무인단속 장비로 적발한 건수까지 포함하면 실제 위법행위는 이보다 많다. 경찰은 앞으로 겨울방학을

맞아 방과 후 수업이 많은 초등학교와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또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초까지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 이달 1~15일 단속된 음주운전은 모두 5895건으로 하루 평균 393건이었다. 이달 16~22일 단속된 음주운전은 2400건으로 하루 평균 343건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25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청,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공>

## 광양제철 폭발사고 현장 감식...축열설비 등 조사

경찰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25일 현장 감식을 했다.

광양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청,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 30여분 동안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사고가 난 곳은 제철소 조업 시설이 아닌 폐로망간(Fe-Mn-망간철) 공장 인근의 발전 설비였다.

포스코에 따르면 제철소에서 배출돼 버

려지는 열에너지를 모아 다시 발전하는 배열발전 축열설비 연구과제를 수행하다가 시험 가동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 감식에 참여한 경찰과 국과수 관계자들은 현장 잔해와 폭발로 인한 흔적 등을 통해 폭발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 안전설비 등을 조사했다.

이들은 축열설비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현장 관리자들을 상대로도 설비 관련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1차 조사했다.

향후 부상자들의 회복 상태에 따라 면담 조사하고, 설비 작동 상태를 전달받은 메인컴퓨터와 축열재 구성 성분을 분석할 예정이다.

감식 결과는 최소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4일 오후 1시 15분께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포스코 시험연구소 연구원과 기술자 등 5명이 다쳤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가족 보는 앞에서 동업자 아들 살해...2심도 징역 17년

동업자 아들을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가족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황진규)는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밤 11시 10분께 전북의 한 농장에서 동업자 B씨의 아들 C(23)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동업자의 아들 C씨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벌였다. 가족운송사업을 하는 A씨는 평소에도 차량 배치와 영업이익 배분 문제로 동업자인 B씨 부자와 자주 마찰을 빚어왔다. 사건 당일도 차량배차 문제로 고성이 오갔다.

전주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전화로 다툼을 벌인 끝에 화를 참지 못하고 곧장 택시를 타고 C씨를 찾아가 동업자 B씨 등 C씨의 가족이 보고 있는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C씨를 수 차례 찔렀다.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과다 출혈로 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말리던 B씨에게도 전기 3주의 부상을 입혔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7년을 선고하자 A씨는 "살해 및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흉기로 찔러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살해 및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전북=박기섭 기자 parkks@

## 크리스마스 새벽 술 취해 카페 주인에게 흉기 휘둘러

순천경찰은 25일 카페 주인을 흉기로 찔러 혐의(살인미수)로 A(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 50분께 순천시 한 카페를 찾아가 지니고 있던 흉기로 주인 B(58)씨의 배를 찔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과거에도 카페를 방문한 적이 있으며 이날은 술에 취한 채 영업 중이던 카페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 항구에서 주차하려다 바다로 '퐁당'...마을 주민들이 구조



○...진도의 한 항구에 서 차를 몰던 40대 여성이 운전미숙으로 차와 함께 바다로 빠졌다가 주민들에 의해 구조.

○...25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A(여, 45)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진도군 서방항에서 자신의 마티즈 차량을 항구에 주차하려다 운전미숙으로 바다에 추

락했다는 것.

○...추락한 A씨는 마을주민의 도움으로 바다에 빠진 차량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데, 구조 후 저체온증을 호소한 A씨는 해경의 도움으로 안정을 찾았으며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

/목포=박영길 기자 kyj@kwangju.co.kr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